

무등산 4수원지 보호구역 해제 ‘논란’

지난 5월 취수·수질 취약 이유로 각화정수장 폐쇄
환경단체 “난개발 우려...관리 방안 등 마련돼야”

광주 무등산 자락 4수원지가 각화정수장 폐쇄와 함께 취수가 중단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 지역 환경단체들이 “난개발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북구는 4수원지 일대 9.7㎢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려고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취수 기능이나 수질이 취약하고 지난 5월 각화정수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더는 수원지가 필요 없어졌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북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서 광주시는 주민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하고 14일간 주민 의견 공람·공고, 주민 의견 결과 제출을 거쳐 시장이 해제 공고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지적과 지형도면을 고시해 완료된다.

4수원지는 북구 청풍동 일대 석곡천을 막아 1967년 준공했으며 보호구역 지정은 1981년이었다.

40년 만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절반이 넘는 5.7㎢ 사유지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상당 면적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자연환경 지구에 해당해 개발 행위는 여전히 제한된다.

다만 공원 마을 지구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대단위 개발은 어렵더라도 수려한 경관을 고려한 음식점, 카페, 펜션 등 소규모 시설 난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책 마련에 손잡아야 할 광주시와 북구는 논란이 일자 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상대방이 주도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양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빛고를 하천 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게 되면 장기적인 4수원지 활용 가치에 대한 평가

와 대책 없이 이뤄지는 졸속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4수원지 인근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수원으로서의 가치나 기능이 후퇴·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중단과 4수원지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상 상수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 고려 ▲물 활용에 있어 영산강, 섬진강 독립 유역권 구축 ▲4수원지 물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 계획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북구에 요청한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검토해 해제를 추진하고 최종 결정을 환경부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상수도 사업본부, 도시계획과에서 부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을 대책을 협의하고 북구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태훈기자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춘천

19/27

강릉

20/24

대전

21/26

도도

21/23

전주

21/27

대구

20/29

광주

21/27

부산

22/28

목포

22/26

여수

22/28

제주

22/27

제주

22/27

제주

22/27

해돋이 06:10 해질 18:50

달 뜨기 07:06 달 뜨기 19:51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50

우산 챙기세요

빨래

20

잘 마르지 않아요

세차

20

다음으로 미루세요

운동

70

선반운동 즐겨요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20	목포	03:05 08:18	15:14 20:28
목포	30-20			
순천	30-20	여수	09:52 03:39	22:15 15:52
여수	30-20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서-북서/1.0-2.0m

오전 먼바다 서-북서/1.5-3.0m

오후 앞바다 북서-북/0.5-1.0m

오후 먼바다 북서-북/1.0-2.0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서-북서/0.5-1.0m

오전 먼바다 서-북서/1.5-2.5m

오후 앞바다 서-북서/0.5-1.0m

오후 먼바다 서-북서/1.0-1.5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7)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9월 9/목 (19/28) (19/18) (18/28) (20/28) (20/28) (22/28)

10/금 (20/27) (21/28) (21/28) (20/28) (20/28) (23/27)

11/토 (19/29) (19/28) (21/29) (19/28) (19/30) (23/29)

날씨안내 : 국민안전처

동강대에서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

동강대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 전문대학 입학정보를 한자리에 제공한다.

7일 동강대에 따르면 “2022학년도 호남권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강대 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가 주최 주관으로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2022학년도 수시 1차 모집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진로진학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학은 동강대를 비롯해 광양보건대, 광주보건대, 군장대, 기독교간호대, 동아보건대, 목포과학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원광보건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청암대, 한영대 등 19개 대학이다. /김동수기자



“감각정원서 빛을 즐겨요” 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감각정원-빛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전이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등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김애리기자

광주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전국 3위

교직원 모금 활동 등 신입생 등록금 부담 완화 ‘총력’

재학생 1인당 장학금(2021년 대학정보공시 종합대학 5천명이상 1만명이하, 산업대학 제외)에서 호남제주권 1위·전국 3위를 기록한 광주대(총장 김혁중)가 신입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대학정보공시 결과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 가치 실현을 입증한 광주대

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과 학부모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교직원들이 자발적 모금 활동에 나섰다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신입생 ‘등록금 전액 면제’를 위해 전액 장학금 대상자 확대를 발표한 광주대는 교직원 모금 활동을 통해 신입생들이 코로나19 경제적 악화 속에

서도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대는 신입생뿐 아니라, 재학생을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정책을 마련했다.

어학우수자 장학금을 비롯해 문화체육예술특별장학금, 장애학생지원장학금, 복지장학금, 외국인학생장학금, 다문화가족장학금, ROTC(학군단)장학금 등 50여 종의 질 높은 장학금 혜택을

통해 체계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최초합격자에게 70만원, 총원합격자는 40만원의 학업장려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수능 4개 영역 평균 1등급일 경우 4년간 등록금 면제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선별 시 1회 전액 지원, 학업장려장학금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호심매원특별장학금과 전제 지원자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수능 6.5등급까지 장학금 및 학업장려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태훈기자

서구, 공공 스포츠 인프라 구축한다

광주 서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반다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체육기금) 40억원을 지원받는다.

7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및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하고, 재건축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중인 현 양동 서구장애인복지관 부지를 활용해 건립을 추진한다.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및 구비 45억원 등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천500㎡ 규모로 국민체육센터와 서구장애인복지관을 복합 시설로 건립한다.

센터는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수중운동실을 포함, 지상에는 체력단련실과 재활 프로그램실, 옥상 정원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최병진기자

철거건물 붕괴참사 시민대책위 오늘 출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이 참여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는 8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참사가 일어난 지 만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유가족, 시민의 기대와 달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형식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참사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이 진정한 사과도 없이 돈으로 유가족을 우롱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철저한 수사, 엄중한 처벌, 현대산업개발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이행,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대책 제도와 법제화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조태훈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진짜 맛과 멋이 있는

진도조금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 12, 17, 22, 27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문의 : 062)650-2099

CMYK